

2023. 11. 8.(수) 석간용

이 보도자료는 2023년 11월 8일 오전 06:00부터 보도할 수 있습니다.



보도자료

담당부서 : 노동·공정·상생정책관
공정경제담당관

공정경제담당관 김경미 2133-5360

소비자보호팀장 정현영 2133-5374

사진없음 사진있음 쪽수 : 3쪽

관련 누리집

www.seoul.go.kr

“기차표 구매 줄서기 사라집니다” ...서울시, 어르신 디지털 교육 진행

- 8일(수)~10일(금) 용산역서 60대 이상 어르신 누구나 현장에서 바로 참여 가능
- 전문교육 수료한 동년배 시니어강사와 1대 1로 앱 설치~회원가입~예매 실습
- 디지털 약자 어르신 대상 키오스크 활용법 등 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 확대 예정

70대 A씨는 몇 년째부터 명절에 고향을 찾지 못하고 있다. 유일한 교통수단이 KTX 명절표 예매가 앱과 홈페이지 등 온라인과 전화로만 가능해졌기 때문. 스마트폰 이용이 서툰 A씨가 표를 구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해졌고 이런 이유로 명절 연휴가 끝나고 나서야 역에서 직접 표를 사서 고향에 갈 수밖에 없었다.

60대 B씨는 지인들과 주말여행을 즐겼다. 그동안은 역이나 터미널을 미리 방문해 여행일 표를 구매해 두곤 했었는데 온라인 예매가 활성화되면서 젊은 사람들이 주말표를 빠르게 선점해 버리는 탓에 그나마 한가한 주중에만 여행을 간다.

스마트폰을 통한 예약시스템이 상용화되면서 기차나 고속버스 등 각종 교통수단 예매에 어려움을 겪는 어르신들이 늘고 있다. 실제로 어르신 10명 중 6명(60.4%)이 정보화기기를 통한 기차·고속버스 예매시 불편을 느꼈다고 답할 정도다.

※ 2020 노인실태조사보고서: 불편(35.7%), 매우불편(24.7%) (한국보건사회연구원)

<8일(수)~10일(금) 용산역서 60대 이상 어르신 누구나 현장에서 바로 참여 가능>

- 이러한 어르신들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서울시와 한국여성단체협의회가 스마트폰 앱을 활용한 예매 교육을 8일(수)~10일(금) 14시~17시에 용산역 내 렛츠코레일 여행센터 앞에서 진행한다고 밝혔다.
- 이번 교육은 스마트폰 예매에 막연한 두려움과 거부감을 느끼고 있는 60세 이상 어르신이 주요 대상이다. 전문적인 교육을 수료한 동년배의 시니어 강사 7명이 스마트폰 앱 설치부터, 회원가입, 예매실습과 취소에 이르는 전 과정을 1대 1로 차근차근 알려주는 방식.
- 교육은 사전 신청없이 누구나 현장에서 바로 참여할 수 있다. 1인당 교육 시간은 20~30분이며 교육비는 무료다.
- 한편, 서울시는 디지털 발전과 비대면 서비스 확대에 증가하고 있는 키오스크 활용 교육을 비롯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어르신들이 불편을 느끼지 않고 편리한 소비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 김경미 서울시 공정경제담당관은 “편리함의 대명사인 스마트폰 서비스가 어르신들에게는 장벽 될 수 있다”며 “어르신들의 의견을 청취해 교육과정을 개선하고 또 요청에 따라 다른 분야 교육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붙임) 위치도 및 현장전경

